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0.07(금) ~ 2022.10.13(목)

제공일시 2022 10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0.07(금) ~ 2022.10.13(목)

제공일시 2022 10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도 청정에너지 전환 위해 핵심광물 생산 규제 푼다”

- EU가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원자재 생산 증대를 위해 ‘원자재법’ 핵심전략 프로젝트 지정 승인 절차를 신속처리하는 방안을 마련중임
- EU위원회는 풍력발전단지,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소재 채굴과 생산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계획을 마련 중이며 프로젝트 인허가 일괄처리제도 신설, 문제발생시 해당국가 법적 절차 가속화 방안을 포함함
- EU공동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세계 리튬전지생산량의 1%를 차지하는데, 중국은 66%임 2050년까지 전세계 리튬 수요는 현 소비량의 6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일부에서는 유럽 내에서 가능한 채굴의 한계가 있다며, 역외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에너지데일리, 2022.10.07) 변국영 기자

2. EU 연내 ‘태양광 연합’ 발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태양광연합’의 연내 발족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을 중단하기 위한 ‘리파워EU’ 계획의 일부로, 2025년까지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역내 태양광 제조 역량을 연간 30기가와트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 현재 글로벌 태양광 웨이퍼의 96%, 태양전지의 79%, 태양광 모듈의 78%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관한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EU는 태양광 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임
- 13개 태양광단체들은 EU집행위에 보낸 공동서한에서 “태양광연합에 대해 EU의 반도체법과 등등한 수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한국무역신문, 2022.10.13) 이용석 기자

3. 뉴질랜드, 기후변화 대응 농장 동물 트림·오줌 세금 부과 추진

- 뉴질랜드 정부는 11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소 트림과 오줌을 포함하여 농장 동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 뉴질랜드에는 약 1000만 마리의 소와 젖소, 2600만 마리의 양이 있음 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제안된 농장에 대한 세금은 세계 최초임 또한 농민들은 기후 친화적인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 움직임은 뉴질랜드 농업의 주요 로비 그룹인 ‘농부 연합(Federated Farmers)’과 함께 뉴질랜드 농부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음
- 뉴질랜드의 보수정당인 뉴질랜드 행동당(ACT Party)의 야당 의원들은 이 제안이 식량 생산에 덜 효율적인 다른 국가로 농업을 이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배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2.10.12) 김세업 기자

1. 세계 항공업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합의/ [SAF의 현주소 #1] '탈탄소' 지속가능한 비행의 미래,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50년까지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 탄소중립(Net-ZERO·넷제로)을 달성하기로 합의했음
- ICAO 193개 회원국은 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1차 ICAO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음
- 협정에 따라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들 국가는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와 친환경 연료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항공기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공항 확장 계획, 마일리지 제도 등 항공권 서비스도 중단해야 함
- 한편, 최근 대한항공도 셀과 SAF 구매계약을 체결했음 아직 SAF 사용량은 전 세계 항공유의 0.1% 수준에 불과함

(아시아경제, 2022.10.08) 정동훈 기자
(뉴스핌, 2022.10.08) 성은숙 기자

2. 블랙록, 에너지 보이콧 주장 대처 위한 웹사이트 개설

- 블랙록이 회사가 ESG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어젠다를 추구하고, 화석연료 회사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안티ESG에 적극 반박하기 위해 '에너지 투자: 기록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음
- 플로리다주는 2280억달러 연기금에 ESG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텍사스는 안티 ESG 금융기관 목록 대상에 블랙록을 포함한 목록을 발표했다음
- 루이지애나주도 8억달러의 주 재무자금을 블랙록으로부터 뺐음 블랙록은 이러한 논란에 반박하기 위해 19명 법무장관에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번 웹사이트를 통해 안티ESG운동이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재무적인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미국 에너지회사에 17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고객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취지도 설명하고 있음

(ESGToday, 2022.10.11) Mark Segal 기자

3. 런던증권거래소, 자발적 탄소시장 출범

- 런던증권거래소가, 자발적 탄소시장(VCM) 지정에 대한 최종 승인 및 공시기준을 발표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 출범을 공식화했음
- 이는 탄소배출권을 제공하고, 투자자와 기업에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시장 규제 및 공시 적용 기후완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최초의 공공 시장 자본조달 솔루션 구축을 의미함
- 탄소상쇄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는 기업들의 넷제로 발표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런던증권거래소는 지난해 11월 VCM시장 출범 의사를 밝혔으며, 이제 런던거래소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투자펀드와 운영회사들은 IPO를 통해 자본조달을 받을 수 있고, 이 자원은 산림 조림이나 탄소 포획 등 기후완화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음

(ESGToday, 2022.10.12) Mark Segal 기자

1. “연내 ESG 공시 최종안 나올 것… 지금부터 데이터 신뢰 확보해야” [글로벌 ESG 포럼]

- 백태영 IFRS 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은 11일 열린 ‘2022 글로벌 ESG 포럼’에서, 기업 가치의 관점에서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역량을 갖춰야 국내 기업들도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 추세에 발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음 (한국경제, 2022.10.12) 이주현 기자
- 백 위원은 ISSB 위원으로서, 기업들이 ISSB 초안에 대해 헛갈릴 만한 부분을 명쾌하게 짚었음 그는 S1에서 밝힌 공시 대상에 대해 “모든 중대한(significant)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중요한(material) 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다음 연사로 나선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ISSB 공시 초안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을 소개했음 권 파트너는 “더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거나, 공시 기준 적용에 유예기간을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음

2. 日 ‘암모니아+석탄’ 혼용 실험… 2040년 순수 암모니아 발전 목표

- 일본의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각각 출자해 설립한 발전회사 제라가 지난해 6월부터 헤키난화력발전소에서 연료 일부에 암모니아를 소량 혼합해 발전하는 실험을 시작함 (서울신문, 2022.10.12) 김진아 특파원
- 제라는 내년 말 암모니아 혼합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나아가 2028년에는 50% 이상으로 비율을 대폭 늘리고, 2040년에는 100% 완전 상용 운전을 하는 걸 최종 목표로 두고 있음
- 암모니아 발전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에 비해 액화가 쉬워 폭발 위험성이 적고 기존 화력 발전소 시설의 일부 개조만으로 발전할 수 있어 초기 시설 투자가 적다는 장점이 있음
- 또 암모니아를 20% 비율로 혼합하여 석탄 발전을 하면 순수 석탄발전보다 비용이 24% 절감되어 앞으로 더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3. [초점] 세계 최초 ‘탄소 흡수 콘크리트’ 상용화 임박

- 캐나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상용화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곧 가동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2.10.13) 김현철 기자
- 캐나다의 카본 제거 솔루션 전문업체 카비크리트(CarbiCrete)는 캐나다 콘크리트 제조업체 파티오드 러먼드와 손잡고, 탄소 흡수 콘크리트 양산화를 목표로 한 생산 라인을 가동할 계획을 밝힘
- 콘크리트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이유는 주원료인 시멘트에 있는데, 카비크리트는 시멘트 대신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강 슬래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만들며, 콘크리트를 굳히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음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최고 30%나 높고 산업 쓰레기로 여겨진 철강 슬래그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 단가가 낮다는 장점도 있음

1. “폴스타 목표는 지속가능성… 블록체인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 폴스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기후 중립을, 2040년까지 기업의 모든 가치사슬에서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힘
- 폴스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차량 생산 과정에서 코발트와 위험물질로 분류된 운모 등 각종 원료를 효율적으로 추적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관리하고 있음
- 이외에도 폐배터리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미국, 스웨덴에서 배터리 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프레드리카 클라렌 폴스타 지속가능성책임자는 “폴스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추구한다”며,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매일경제, 2022.10.12) 이새하 기자

2. ‘환경’ 지키는 뷰티업계, 공병수거에 리필패키지까지 ‘탈플라스틱’

-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포장재를 줄이거나, 스킨케어, 섹조 등 신제품에 재사용이 가능한 ‘리필 패키지’를 확대하고 있음
- 가장 활발하게 리필 패키지가 적용되는 제품군은 스킨케어로, 사용 빈도를 감안할 때, 용기 교체 시기가 짧은 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 용기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음
- 최근에는 샴푸, 디올 등이 컬러와 케이스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립스틱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음
- 이외에도 아모레퍼시픽 오산 뷰티파크는 폐기물 매립 제로 국제 인증을 획득하고 LG생활건강은 서울 가로수길과 이마트 죽전점에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음

(한스경제, 2022.10.11) 고예인 기자

3. 국내 에너지 기업들, ‘새판짜기’ 한창… ‘미래먹거리’ 선점 노력

- 국내 에너지 분야 대기업이 미래먹거리를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해 기술을 공유하고 원자재 공급을 위해 해외 기업과 MOU(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국내외 협업에 나서고 있음
- 국내외 기업과 합작사 설립에 나선 곳은 GS, 포스코, 롯데케미칼, SK가스 등으로 새로운 에너지는 공통된 미래먹거리인 만큼, 협업을 통해 선점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롯데케미칼과 SK가스는 부생수소 기반 발전소인 ‘롯데SK에너지주주 주식회사’를 세워 수소충전소, 수소 공급망 및 유통 등 수송용 수소 사업에 뛰어들 계획임
- GS에너지와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 재활용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인 ‘포스코GS매너리얼즈’를 설립하고 LG엔솔과 SK온은 코발트, 리튬 등 안정적인 배터리 원재료 수급을 위해 해외기업과 MOU를 체결했음

(이투데이, 2022.10.07) 박기영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0.07(금) ~ 2022.10.13(목)

제공일시 2022.10.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글로벌 석유·석탄 기업들 탄소감축·재생에너지·저탄소 사업에 투자 늘려

탄소 최대 감축한 기업 1위는 에넬(Enel)

- 지난 10년 간 동종 기업에 비해 탄소를 가장 많이 줄인 기업으로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Enel)이 1위로 꼽힘. 에넬(Enel)은 2012년 이후 스코프 1 및 2 배출량을 7300만 톤 줄이면서 시장 가치를 두 배로 높여 전체 1위를 차지함
- 캐나다 미디어 코퍼레이트 나잇츠(Corporate Knights)는 상장기업 6500여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매출 증대와 동종 기업 대비 탈탄소를 이룬 기업 8개 부문 20개 기업 리스트를 12일(현지 시각) 발표함
- 리스트에 오른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 석탄회사와 광산회사였음. 이 20개 회사는 지난 10년(2012~2021년) 동안 순수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 및 2)을 8억6200만 톤에서 4억8900만 톤으로 43% 줄임
- 이들 회사가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의 약 3분의 2는 대부분 효율성을 높이거나 오염자산의 폐기에서 비롯됨. 온실가스 감축분 중 40% 가량은 소위 '더러운 자산'을 매각하는 것에서 비롯됨
- 1위에 오른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넬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자산을 폐기함으로써 거의 독점적으로 탄소의 거품을 줄이는 데 성공함. 이러한 감소의 대부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에넬이 50개의 석탄 발전소 중 40여 개를 빠르고 맹렬히 폐쇄하면서 이루어짐. 발전 용량으로 따지면 31%에서 6%로 줄인 것임. 이 기간 중 재생에너지와 전력 그리드(Grid)의 현대화에 집중해서 2021년에만 70여 개의 재생발전소를 건설했으며, 에넬은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기할 계획임
-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감축한 회사는 석탄을 대폭 줄인 대형 전력회사인 아메리칸 전력(American Electric Power)임. 이 회사는 석탄 감축에 집중해서 재생 에너지의 사용율을 1%에서 8%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석탄 용량을 71%에서 55%로 줄임
- 코퍼레이트 나잇츠 분석에 따르면, 이들 20개 기업의 투자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를 위한 신규 투자의 35%에 불과함. 이 기업들은 여전히 자본의 대부분을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억제하거나 좌초할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자본 지출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20개 회사는 2030년까지 총 5280억달러(약 752조 원) 규모의 지속 가능한 투자를 예측함. 에넬이 1580억달러(약 225조원)를 투자하고,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가 1440억달러(약 205조원)를 투자해서 2021년 투자액의 85%를 재생 가능한 저탄소 전력 시스템에 투자함. 반면, 셸(Shell)의 투자 중 2.7%만이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됨. 석유 및 가스 회사인 토탈 에너지는 10년 말까지 저탄소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 580억달러(약 82조원)를 책정했는데, 2021년에는 29억달러(약 4조원)를 책정함
- 코퍼레이트 나잇츠는 최고 경영진 보상뿐만 아니라 주주 배당금을 비교하여 이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파악하고 싶었던 것임.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업은 현금 흐름의 대부분을 주주 및 임원에 대한 보상 대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임. 그러나 20개 기업 중에서 12개 기업은 저탄소 지속 가능한 사업을 키우는 것보다 주주들과 최고 경영자들에게 더 많은 현금을 지원함. 동종 석유회사 토탈 에너지는 28%, BP는 29%, 에니(Eni)는 59%의 비율로 저탄소 솔루션 확장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짐

(임팩트는, 2022.10.14) 홍명표 기자

(임팩트는, 2022.10.14) 홍명표 기자

- 세계 최대 가스 및 오일기업인 엑손모빌도 지속가능한 저탄소 에너지 사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첫 번째 상업용 탄소저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가 12일(현지시각) 보도함. 이번 계약은 엑손모빌이 새롭게 추진하는 저탄소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205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용 탄소 저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임
- 계약 체결 대상은 세계 최고의 암모니아 제조사인 CF인더스트리 홀딩스(CF Industries Holdings)로,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엑손모빌의 토지에 이산화탄소를 매장하는 사업임. 메이저 정유사에게는 이례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엑손 측은 CF인더스트리 홀딩스가 루이지애나주에 2억달러(약 2850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압축 시설을 건설, 2025년부터 연간 200만톤 가량의 암모니아 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물을 지하에 운반해 보관할 것이라고 밝힘
- 유럽의 정유사들이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엑손의 에너지 전환 전략은 석유와 가스 생산을 계속 확대하되 탄소 포집 및 저장(CCUS)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이러한 탄소 중심의 전략과 올해 석유와 가스 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엑손 주가는 현재까지 약 60% 상승함
- 2027년까지 저탄소 운영에 대한 회사의 150억달러(약 21조원) 투자 계획 중 약 90억달러(약 12조원)는 루이지애나주의 자체 현장 배출량을 줄이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는 탄소 포집, 수소 및 바이오 연료에 사용될 것임